한국형 모델 창출이 성패의 관건

학술특집 CATV의 현황과 전망 (2)

강 형 철
(연합통신 방송뉴스부 기자)

국내 시청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기가 있으면 해외교포 방송이나 교포상대 비디오 대여점을 통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만을 만들어 내는, 그런 좁은 시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오는 95년 초부터 케이블 TV 방송이 시작된다. 우리나라 기업과 방송의 '영원한 모델', 일본에서도 맥을 못추고 있는 케이블 TV방송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케이블 TV도 입을 반대했다.

하지만 우리는 케이블 TV를 시작할 수 밖에 없다. 정보화사회가 괄연이라면 케이블 TV는 정보화사회로 가는 분택이기 때문이다. 종속이론가 프랭크(A.G.Frank)가 본대로 '저발전의 발전'(the development of underdevelopment.)의 굴레를 벗어 버릴 수 없어 영원한 기술격차(technological gap)를 예상한다고 해도 선도해 나갈 수 없다면 새로운 기술과 환경을 쫓아라도 가야지 별 도리가 없지 않은가. "우리식대로 살자!"라고 굳게 다짐하지 않을 바에야.

이런 당위성에서 이왕 케이블 TV를 시작하기로 했다면 케이블 TV를 성공시켜야만 하는 우리, 선발국에 비해 프로그램도 없고, 시장도 좁고, 기술·장비도 변변치 못한 우리에게 그나마 다행한 점이 하나 있다. 후발국의 이점을 살려 성공한 나라의 예를 모범으로 실패한 나라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새로운 '한국형 모델'을 만들수 있다는 것이다.

그 '한국형 모델'은 우리나라 케이블 TV방송구도를 설정해 놓은 '종합유선방송법'에 잘 나타나있다. 지난 91년 발효된 이 법은 한국의 케이블 TV를 이끌어 갈 '3대 주체'로 일컬어지는 ▲프로그램공급업자 ▲전송망사업자 ▲종합유선방송국(케이블 TV방송국)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이 법률의 기본구조는 선발국가와는 달리 케이블 방송 3대 사업자를 완전 분리한 -국내외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독특한 '한국형 모델'이다. 이 3대 주체가 연결되는 방식이 바로 '한국형 모델'이다.

Ⅰ. 케이블 TV방송국(종합유선방송국: System Operator)

지역독점사업권(franchise; 예를 들면 서울시 양천구에서는 자신만이 방송국 한개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을 가지고 프로그램공급업자가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받아 가입자에게 방송을 서비스하는 사업체. 미국, 일본등의 경우는 케이블 TV방송국이 자신의 독점지역에 직접 선로를 깔고 프로그램공급업자의 프로그램을 사온 뒤 가입자를 유치해서 운영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 종합유선방송법은 케이블TV방송국이 별도의 망사업자가 깔아 놓은 케이블망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6대도시를 중심으로 54개지역의 케이블TV방송국을 일차로 허가할 예정이고 차츰 허가지역을 늘려 전국에 1백16개를 모두 허가할 예정이다.

Ⅱ. 프로그램 공급업자 (Program Provider)

케이블TV방송국을 상대로 자신의 프로그램(채널)을 공급하는 사업체. 일반가정을 상대로 프로그램 판매를 하지 않고 케이블 TV방송국을 거치는 점이 지상파 방송국(KBS, MBC, sbs등)과는 다른점이다. 한번 더 설명하자면, 케이블TV방송국은 프로그램공급업자로부터 받은 프로그램을 단순히 자신의 시스템에 실어 보낼 뿐이다. 지상파방송국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파는 독립프로덕션(예, 씨네맨 서울등)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프로그램공급업자 또한 독립프로덕션의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자신의 채널에 편성할 수 있다. 미국의 CNN, HRO, M-TV등이 대표적인 프로그램 공급업자이다. 미국에서는 보통 이들을 케이블 네트워크(예, CNN은 Cable News Network의 약자)라고 부른다.

Ⅲ. 망사업자

케이블 망을 까는 사업자를 말한다. 우리가 보통 쓰는 전화선과는 달리 용량이 큰 동축케이블을 사용함으로써 음성신호 뿐만이 아니라 TV화면을 실어 보낼 수 있다. 이 케이블망은 동축케이블에서, 케이블의 굵기는 가늘지만 그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용량이 큰 광케이블 망으로 대체돼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현재 한국통신, 한국전력, 데이콤 등이 망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중이며,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 망사업자가 이미 건설돼 있는 시설·건물등을 빌고 망을 까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막대한 만큼 그 비용을 초기에 회수코자 가입자의 부담금을 높게 책정하는 바람에 케이블 TV가입률이 저조하고 그에 따라 케이블 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는 공공성을 띤 사업체들이 망을 깔도록 돼 있어 그만큼 비용회수에 대한 부담이 적으므로 시청자 부담금이 낮게 책정된 것이므로 우리나라 케이블TV 산업을 밝게 전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로 운영되는 케이블 TV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정부는 지난 1일 프로그램공급업자 20개를 선정했다. 각 프로그램공급업자들은 각자의 전문화된 채널을 운영한다. 따라서 케이블 TV방송이 시작되는 95년 초에는 우선 당장 뉴스, 영화, 스포츠, 교양, 다큐멘터리, 오락, 교육, 음악, 어린이, 여성, 천주교, 불교, 교통관광 등을 각 각 전문으로 하는 채널 20개를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다 지난 6월 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열렸던 전미 케이블협회(NTCA)연차대회에서 새로 발표된 채널 30여개를 감안해 볼 때 우리 케이블의 미래상도 예측해 볼 수 있다.

빠르면 올해부터 미국에서 방송될 채널들은 광고정보만을 전달하는 '광고채널', 범죄에 관계되는 영화, 방범교육 등을 내보낼 '범죄채널', '알콜중독 치유채널', 21개의 외국어로 방송되는 '국제채널'을 비롯, '역사채널', '골프채널', '군대채널'등이 포함돼 있다. 나아가 현재 시험단계이긴 하지만 케이블을 이용해 다른 가입자와 컴퓨터게임을 즐기는가 하면 보고싶은 영화를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수시로 받아보고 심지어는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가버린 장면을 다시 찾아서 볼 수 있는 서비스까지도 가능하다.

케이블 TV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는 케이블 TV망을 이용해서 전화사업(이동전화 포함)을 하고 있으며 방범 방재시스템이 이에 연결된다. 광대역 종합정보 통신망(Broadband 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과의 연결이 아마도 케이블 TV의(우리의 현재 머리 수준에서 그려볼 수 있는)마지막 단계일 것이다.

ISDN(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 즉 종합정보통신망이란 단말기 하나로 전화는 물론 텔렉스, 팩시밀리, 컴퓨터, 텔레텍스, 데이터베이스, 컴퓨터통신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첨단통신, 시스템을 말한다. 이것에 TV와 같은 화상음성정보가 추가될 경우 B-ISDN(광대역 종합정보 통신망)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정부는 케이블 TV를 장래에 B-ISDN의 하부 시스템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미국 케이블 TV 업계는 최근 발전방향을 이용자 상호간 정보교환이 가능한 '쌍방형'(interactive) 서비스로 잡고 광통신망과 디지털 압축기술, 그리고 컴퓨터를 연결, 다양한 서비스를 시험하며 채널 500개로 멀티미디어 시대를 열기 시작함으로써, 케이블 TV를 통한 B-ISDN실현을 가속화 하고 있다.

우리는 케이블 TV를 시작하면서 조물주가 아닌 인간 스스로가 만든 '인간사'의 룬력을 밟게 되는 셈이 되었다.

◇케이블TV의 도입은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광역 종합정보통신망과의 연결이 최종 단계
단말기와 수상기만으로 첨단통신 이용 가능

이른의 쌍방향(two way)성을 한껏 활용해 가입자들이 방송국에 저장된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른 가입자와 컴퓨터게임을 즐기는가 하면 보고싶은 영화를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수시로 받아보고 심지어는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가버린 장면을 다시 찾아서 볼 수 있는 서비스까지도 가능하다.

경희 LAN이야기 ①

지난 92년 8월 본교 서울, 수원, 광릉캠퍼스 근거리 종합통신망(LAN)이 설치 되었다.

그러나, 정보의 전달, 보관, 처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LAN의 이해와 사용은 저조한 상태이다. 이에 LAN에 대한 독자들의 폭넓은 활용에 도움이 되고자 총 10회에 걸쳐 본 시리즈를 게재한다.

〈편집자 註〉

메인 컴퓨터 접속 방법

사용자가 메인 컴퓨터에 접속하는 작업을 로그인이라 한다. 먼저 도스 프롬프트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친다.

htn [대상호스트이름]
khsun 컴퓨터를 예로들면, htn khsun

그러면, 화면상에 로그인을 묻는 메시지가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 자신의 아이디(ID)를 친다. 다음으로 패스워드를 묻는 화면이 나타나면 마찬가지로 패스워드를 입력한다.

잠시후에 KHSUN%과 같은 프롬프트가 나타나는 데 이러한 상태가 되면 성공적으로 로그인 된 것이다.

ID 할당을 받으려면?

서울 캠퍼스 쪽은 ID계정이 마감되었으며 ID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수원전자계산소에서 신청서를 발급받아 작성후 대금과 함께 제출하면 할당을 받을 수 있다.

LAN SYSTEM은 기본적을 UNIX 명령어 체계를 따르므로 UNIX를 알아두면 효율적으로 LAN을 사용할 수 있다.

〈경영시스템 연구회 UNIX팀〉

LAN의 기능과 접속방법

경희대 LAN SYSTEM의 기능

①망에 연결된 각 PC를 host의 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

②PC와 host간, PC와 PC간, host와 host간, PC와 File Server간에 프로그램을 송신할 수 있는 기능.

③사용자 간 Hard Disk, Printer, 응용 프로그램 공유 기능.

④전자 우편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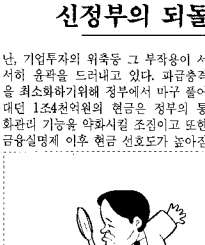
⑤Dacom-Network 연결 기능.

⑥연구전산망 (KREONET) 연결 기능.

⑦원거리 PC 연결 기능.

이하의 예론은 LAN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컴퓨터 중 Khsun을 예로 합니다.

신정부의 되돌아보기



김영삼 정부가 독금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안가를 폐쇄하고 아침메뉴를 바꾸고 각종 소비세를 자진납부하는 등의 청와대 자체정화를 시작으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단행 등 개혁의 돌부림은 지금까지 그 어떤 '대장동지'도 보여주지 못했던 속도와 위력으로 정체적이고 안정적인 당위성에 길들여진 많은 국민들을 숨죽인 채 애의 주시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 개혁의 폭 또한 넓고도 깊어서 사사로워 보이는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한 것에서부터 시행시기에 대해 수많은 우려와 재고가 난무하였던 금융실명제와 같은 정문적 경제현안까지 그 필요성이 요구되는 곳이라면 어디는 시원하게 기다릴 틈도 없이 파헤쳐진다.

지난 8월 12일 혀덕이는 경제난국을 타개할 근원적 처방의 하나라던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후 우리경제는 활기를 되찾기에 앞서 기존 관행과 제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들이기 연습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 과정중 시행착오 또한 많아 검은 돈의 흐름이 아직까지 표면화 되지 않고 있고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의 자금난, 기업투자의 위축등 그 부작용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파급충격을 최소화하기위해 정부에서 마구 풀어대던 1조4천억원의 현금은 정부의 통화관리 기능을 약화시킬 조짐이고 또한 금융실명제 이후 현금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중통화중 1조 7천억원가량이 퇴장함으로 인해 이때로 가다가는 시중에 악성 루머로 떠도는 성장없는 인플레이션을 겪은 후의 '화폐개혁설'마저 전격 단행 되지 않으리라는 안도감을 쉬 가질수 없다.

우리는 지난 72년 사채동결조치때와 90년 정부의 경기 부양정책이 시행됐을때 급작스런 통화팽창으로 인한 엄청난 인플레를 경험한 적이 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상태는 살얼음판위의 스릴을 똑톡히 맛 보게 한다.

급진적인 것이 개혁이긴 하지만 그에 수반되는 파급효과에 대한 철저한 대안의 마련과 해결책의 제시 없이는 하낟 정책의 실패로 귀결될 뿐이다. 여기저기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전개되는 다양한 종류의 개혁이 지금까지 많이 행해져 왔다. 많은 부분이 아직은 국가의 미래 청사진제시에 대한 방향설정이라기 보다는 문민의 햇살을 받지 못했던 지나간 시절하에서 자린 독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정화의 노력이었지만 앞으로의 보다 힘있는 정책수행을 위해 지금까지의 행적을 정비해 볼 필요가 있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가야하는 까닭을 모르는 이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침착하고 차분하게 그 시작을 준비할 때 천리길도 갈 수 있는 의지가 생기고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끝까지 지침없이 마무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정부에 있어 지금이 바로 그 시작을 정비해야 할 때이다.

〈박경화 記者〉

학술단신

아시아연 세미나

아시아사회과학연구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장에서 '남북연합시대를 대비한 법·언론의 실천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남북연합시대를 대비해 법과 언론의 역할모색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세미나는 2가지 주제발표회가 있은후, 토론이 이어진다.

주제및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남북연합시대를 대비한 매스미디어의 과제:여영무교수
▲남북연합시대를 대비한 법·제도적 과제:이장희 교수

건축공학과 공개강좌

공과대학 건축공학과는 지난 10일부터 4주에 걸쳐 금요일마다 '제17회 건축공개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매학기마다 마련되고 있는 이번 강좌는 대한건축학회 회관강당에서 오후 7시부터 개최되며 본교 건축도시연구소가 후원하고 있다.

일별 주제와 강사는 다음과 같다. ▲10일:"대전 EXPO의 마스터 플랜" 조주환(삼우설계) ▲17일:"대전 EXPO정부관의 주제와 건축적표현' 신연학(토우 건축) ▲24일:'건축과 도시설계에서의 Hybrid적 전개'신용학(파리 6대학) ▲10월8일:'건축에 있어서의 주제성;전쟁기념관을 중심으로'이성관(한울건축)

유전공학과 세미나

자연과학대학 유전공학과는 오는 14일 오후 3시 자연대세미나실에서 학술세미나를 연다. 'Fed-Batch Bioreactor modelling and optimization'이라는 주제로 이종대(단국대 화학공학과)교수가 발표한다.

"물을 닮은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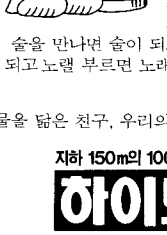
서부전선 임진강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임진강을 가로질렀던 철조망을
가슴속에 품고 돌아온 해가형!
비만 오면 가슴이 아프다고…
후배들이 최루탄속에 고생하는 걸 보면
가슴이 쓰려온다고…

공부도 하고 학점도 따야 되지
않느냐고 물으면 문학도 철학도
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며
그냥 가슴으로 노래나 하나
부르라는 해가형!

그렇게 두드러진 달변도 아닌데
조용조용한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가슴을 온통 젖어버리게 만드는 사람-

최루탄가루 얼굴 가득 묻혀가면
허수아비폼으로 바람쐬게 한 후,
맥주 한잔으로 깨끗이 씻어주는 해가형!

강의실에선 만날 수 없어도
맥주집 쩌그노트에서는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사람-
왜 그렇게 쩌그노트를
좋아하느냐고 물으면
쩌그노트는 치여죽으면
극락에 간다는 인도의
제례용 수레바퀴, 쩌그노트에 치이는 것 외에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는 해가형!



떠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떠나고 마음이 드는 곳이면
넘칠 때까지 고여 있다가
모난 사람을 만나면
모난 사람이 되고 둥근
사람을 만나면 둥근
사람이 되는 신기한
사람-
술을 만나면 술이 되고 춤을 만나면 춤이
되고 노랠 부르면 노래가 되는 해가형!

물을 닮은 친구, 우리의 해가형을 위해 건배!

지하 150m의 100%암반천연수로 만든
하이트 맥주

© 1993 King features syndicate, inc.